

남해관광문화재단, 지자체 출연기관 최초 TPO 가입

☎ 남해/ 박종봉기자 | Ⓞ 승인 2022.07.20 16:31

관광 브랜드 이미지 강화 기대



경남 남해관광문화재단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최초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에 가입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제공]

경남 남해관광문화재단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최초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TPO는 지난 2002년 8월 제5회 아시아태평양 도시 서미트에서 창설된 국제기구로 아태 지역 주요 도시와의 공동마케팅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관광산업 발전 목적협의체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 4월 부산 북구에 소재한 TPO사무국을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TPO는 제38회 TPO운영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가입을 승인했다.

TPO는 지난 4월 기준 총 190개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주요 가입 도시는 중국 광저우와 상하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후쿠오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이 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TPO를 통해 국내·외 회원도시협력 관광마케팅,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 유니크베뉴 MICE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TPO 주관의 공동마케팅 사업 참가와 해외 아웃바운드 관광수요와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의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해/ 박종봉기자